

# 세상은 황금 우물 증생은 하늘 물고기... 아는 자 누구인가?

## 18 선찰대본산범어사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이 큰 이름은 아무 짝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천하가 인정할 역사와 전통이 없다면 얻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입니다. 천하가 인정하는 선찰대본산입니다. 의상 대사가 세운 화엄실학 중 하나인 범어사는 금정산의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무성한 법림(法林)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황금 우물이고 일체증생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임을 알리려는 선지식들의 간담없는 정진이 오늘도 성성하게 살아 있는 도량인 것입니다.

장맛비가 그친 오후, 후텁지근한 속세의 더위를 뒤로하고 금정(金井)의 약속 한 바가지를 갈망하며 범어사로 오릅니다. 언덕배기 경사로의 초입에서 만나는 어둡한 수목의 그늘이 땀 냄새 나는 세간과 선향(禪香) 어린 출세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작지 않은 인파가 범어사 오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속진을 털어내고 마음에 법향을 가득 담아가려는 것이겠지요.

절의 역사는 천연하고 당우들은 당당합니다. 일주문이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 숲에 범어사의 역사를 증거 하는 비(碑)들이 서 있습니다. 사리탑 조성에 시주한 불자들의 명단이 새겨진 비도 있고 사리탑 이간공덕비도 있습니다. 석가여래 사리탑비도 서 있습니다. 재가불자의 공덕비도 커다란 몸집으로 서 있고 그 위로 벽파 스님과 남전당 한규 대선사, 금강당 광덕대사비가 나란히 실개울에 발을 담고 있습니다. 왼쪽에도 용성 스님과 성월 스님의 비가 서 있는데 사각의 절제 구조물로 경계를 그려 두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자연석을 활용해 만든 성월 스님의 비들이 펼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문으로 오르는 길가에 도열한 비들의 외형만을 훑어보고 부도밭을 찾아 갑니다. 범어사 부도밭은 일주문 오르는 길 왼쪽 개울을 건너 있습니다.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어우러져 있는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개울물이 흐르고 재주껏 바위를 타고 건너 좁은 길을 따라 40여m를 내려가면 부도밭이 있습니다.

역사의 물결기는 먼 발원지에서 비롯됐지만 유실되고 문헌 이야기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이 땅 절집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채입니다. 범어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려대의 역사는 송두리째 상실됐고 그나마 조선 중기 이후의 역사가 푸짐하여 선찰대본산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지만 거만하지 않은 미덕으로 역사를 갈무리하고, 높지만 자만하지 않는 덕화로 부종수교(夫宗樹敎)의 미풍을 베풀고 있는 도량이 범어사입니다.

범어사 부도밭은 범어사를 닮아 있습니다. 30기의 석종들이 정연한데, 어느 하나도 튀어 오르거나 위축



범어사 부도밭 전경(왼쪽)과 벽파 스님의 비.



### 방광탑. 소신탑 등 자세한 인물정보 없어 아쉬워 30기의 석종들 정연하게 장엄된 부도밭 습기 많아 '조치' 필요 일주문 오르는 길에 늘어난 비 절 역사 알려 줘

되지 않습니다. 당대 제일의 솜씨를 자랑할 만 한 걸작으로서의 부도들이 아니라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살다 간' 고승들의 초연한 기풍을 타이르듯 전해주는 석종들이 보는 이의 눈길을 낮추게 합니다.

맨 앞줄에는 열 한 기의 부도가 서 있는데 왼쪽 모서리에서 前 동국대 이사 벽파 스님과 불광사 창건주 광덕 스님의 부도를 친견합니다. 수더분한 조형이 선지식들의 군더더기 없는 삶을 응축하고 있으니 우짚는 산세 소리조차 법문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맨 앞줄의 부도 가운데 일곱 번째부터 열한 번째 부도의 몸통에는 방광탑이라는 탑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다섯 기의 부도 주인은 성규 찬운 성진 석전 지홍 스님입니다. 자세한 인물정보를 찾지 못해 아쉽지만, 그들의 수행력이 얼마나 높았으며 몸 혹은 부도가 방광을 했을까요? 수행은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훗날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런하고 중심을 잘 지키고 은연

자중한 수행자에게서는 우주의 좋은 기운들이 빛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안으로 쌓인 서기(瑞氣)가 밖으로 발휘되는 것을 방광이라 하는데, 옛날 범어사의 스승들은 스스로 빛이 될 때까지 수행정진에 오롯했던 것이 '방광탑'이란 부도의 이름이 입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도 열 한 기의 부도가 긴 침묵의 법석을 시연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도에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부도는 소천 스님의 것으로 석종의 몸에 매우 다양한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랫단의 영기문과 연화문은 거스를 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던 연잎들은 매끈합니다. 몸통에는 툰바퀴도 있고 해와 달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도는 좀 오래된 것으로 몸통에 '樂安堂 渡伯大師'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랑백수좌 혹은 만행(萬行)수좌로 불렸던 낙안당 스님은 범어사로 출가해 평생 보시행을 펼쳐 그 행적과 이름이 전설까지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의 시대는 아마 임진왜



소천 스님의 부도

란 이후인 듯합니다. 그는 길가에 나무를 심고 땀을 흘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땀을 식히고 목을 축이게 했을 겁니다. 고갯마루에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짚신을 삼아 지나가는 이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또 길가에 외밭을 가꾸어 행인들에게 외를 나눠 주었으며 마지막 늙은 몸통에는 짐승에게 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나눔의 삶을 살았던 랑백수좌는 일찍을 앞두고 머물렀던 방 앞에 '개문자시페문인'이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문을 닫은 사람이 열게 되리라'는 뜻인데 랑백수좌가 일찍한 뒤 그 문은 누가 열어도 열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수좌는 한양의 조지 가문에 환생해 순상(巡相)의 지위에 오른 뒤 범어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담혀 있던 문을 활짝 열어 보임으로써 그가 랑백수좌의 후신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스님들에 대한 부역과 사찰에 대한 공출의무가 지나치자 몸을 바꾸어 폐단을 없애고자 발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래와 기장 지역에는 랑백수좌의 보시행을 알리는 나무와 우물 등이 남아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맨 왼쪽에는 '도원선사소신공양지탑'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때의 스님인지는 몰라도 그 스님은 금강석 같은 불심으로 온 몸을 부처님께 바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신공양의 사례가

그리 많지 않지만 전혀 없지도 않아서 근래에도 태고종의 총무원장 스님이 소신으로 평화통일 등의 큰 사원을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습니다.

부도밭에서 못내 아쉬움 하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범어사 부도밭의 위치는 한적한 곳이지만 지나치게 습한 느낌입니다. 개울가에 있기 때문이고 숲이 우거져 습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장마철이라 더 그런지는 몰라도 옛 석종들이 두꺼운 이끼를 뒤집어쓰고 있고, 모신지 그리 오래지 않은 광덕 스님의 부도마저 푸른 이끼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습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숲의 잡목들을 정리해 바람이라도 잘 통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울을 건너와 다시 일주문 아래 즐비한 비들을 살펴봅니다.

용성 스님의 비와 나란히 서 있는 성월(性月 1866-1943) 스님은 많은 일화와 드높은 선지로 유명합니다. 일타 스님이 찬한 비문에는 근현대사에서 오늘날 범어사의 기초를 다진 성월 스님의 수행이력과 업적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월 스님은 범어사를 중심으로 안양암, 계명암, 원효암, 대성암 등에 선원을 설립하고 선회(禪會)를 배웠습니다. 선학원 설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성월 스님은 선종전파와 조국의 독립운동 범어사의 중흥 등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졸졸 흐르는 실개울에 발을 담근 듯 서 있는 비들은 근래에 단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주 불국사 강원의 어른이신 덕민 스님이 찬한 벽파 스님의 비와 서울 불광사 창건주이며 바라밀운동의 선구자인 광덕 스님이 찬한 남전 스님의 비, 그리고 광덕 스님의 비가 위쪽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외치며 현대사회 포교 사업에 큰 획을 그은 광덕 스님이 찬한 남전 스님(1868-1936)의 비문은 한글이 많습니다. 고구려와 연도 등 숫자가 아니고는 거의 한글로 쓴 것입니다. 이 역시 광덕 스님의 정신을 반영한다 하겠습니. 비문이 전하는 남전 스님의 생애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곤고한 시절인연을 헤치고 선불교의 정신을 깊고 튼튼하게 지탱시키려는 선사의 노력이 글자마다 빛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지식의 생애를 받들어 찬문을 지었던 광덕 스님의 비는 일타 스님이 찬했습니다. 비를 쓰다듬어 비문의 말미에서 광덕 스님의 열반송을 만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니  
칠위안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집 전에 붉소식이  
검 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물형상을 떨쳤으니  
금정산이 당당하여 그의 모습 영원하리라.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2010 불교달력출시

국6절 · 12절 · 두달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탁상 · 한지

###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달력가격 대폭인하 !!!

불서보급 35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공강직영]

불교용품/불교서적/불교달력  
침향/주목/염주/염주주머니  
4·8용품/등표/전선·전구  
공단등/바림등/만월등/청사초롱  
봉축카드/생일카드/프린트용지  
예수재용품/영가문/탑다라니  
사경책/사경지/한지108사경  
양초/향/고급다포/타올다포

※ 달력카드·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정도원 초코파이고봉스님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원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l로 평소 180mg/dl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하 효과를 거두었다.

### 정도원주기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헌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하며 생각하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신)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추물에 나무마리타를 얹고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산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란색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땀 일반고추와 같이 빨갛색으로 익는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 활용처자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원장이나 찜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피라기와 같이 생식유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품질: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조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인 교수와 원예연구 조맹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도원: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첫 출시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분지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